

## 아트페스티벌과 지역의 연관 - 국제전 버블의 한 가운데서

오자키 테츄야

「ART IT」 발행인

### ○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이소자키 신(磯崎新)의 사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05』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전시도 심포지엄도 워크숍도 아니었다. 그것은 개막을 앞두고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디렉터로 지명되어 있던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이소자키 신(磯崎新)이 2004년 12월에 전격 사임한 것이다.

정조가 나타난 것은 그 직전에 개최된 『요코하마 회의 2004——지금 왜 국제전인가?』라는 심포지엄 석상이었다. 이소자키 외에도 하세가와 유코(長谷川祐子), 기타가와(北川) 후람, 난조 후미오(南條史生) 등, 일본을 대표하는 큐레이터들이 패널리스트로서 참석했다. 이소자키는 먼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구상안 『World Atlas of Contemporary Art』를 발표. 큐레이터를 따로 두지 않고 세계 각국의 미술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해서, 각 재단이 건축가에 의뢰해서 세운 파빌리온에 각자 선택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 안의 골자였다. 이소자키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국제전은 디렉터나 큐레이터가 독단으로 작가를 선정하여 유력한 상업 갤러리의 지원을 받아 국제적으로 파는 스타 일이었다. 그런 구도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후보재단에서는 『국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등 적극적인 대답이 와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소자키는 요코하마 시에 개최를 일 년 연기하고 예산도 올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시는 제안을 거부했다. 트리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 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폭적인 관람객 동원 증가를 꾀한 제2안 『Imagine or Imaginaire de l'homme』를 『요코하마 회의』에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이것도 바로 거부. 이소자키는 그 자리에서 사임할 것임을 암시하였으며 며칠 후에 정말로 사임하였다.

프리젠테이션 후의 토의에서 난조가 「현상 인식이 벗어나 있다. 큐레이터와 상업 갤러리가 결탁해서 작가를 시장에 내보내는 도식은 60년대 뉴욕에서나 행해졌던 일이다. 이제 국제전에서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여 소개한다는 목적도 있다.」라고 비판하자, 이소자키는 「그것은 큐레이터의 자만일 뿐, 큐레이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했다. 이에 대해 청중의 한사람이었던 젊은 큐레이터가 「이소자키 씨는 현장의 충실한 노력을 모른다.」라고 반발하여 회의장은 한때 어수선했다. 그러고 보면 2004년도의 일본 미술계에서 가장 「불거리」 있는 이벤트였는지도 모른다.

### ○ 카와마타(川俣)의 「아트 서커스」와 이소자키의 제2안

이소자키의 사임으로 인해 그 비울만큼의 지지를 얻은 사람은 후임으로 지명된 카와마타 타다시(川俣正)였다. 9개월 이내라는 짧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제로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 내야만 했기에 카와마타가 택한 전술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다. 작가로서 스스로의 방법론

「워크 인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아트 인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을 주창하며 실천한 것이었다. 개막 시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관없었으며 작품을 만드는 프로세스 그 자체를 보이면 되는 것이었다. 『ART iT』 2005년 봄·여름 호 인터뷰에서 카와마타는 「플랜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철저히 가변적입니다.」 「관객이 있는 ‘사건’에 조우하는 이미지입니다.」 「컨셉은 분명 마지막에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컨셉이 곧바로 정해져서 발표되었는데, 이는 「아트 서커스 : 일상으로 부터의 도약」이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니 실제로 나타낼 수 있게 최초로 선택된 것은 다니엘 뷔랭의 「뷔랭 서커스 에토칸」이었다. 트리엔날레의 주회의장 입구에서 펼쳐진 「서커스」는 내방자의 눈에 가장 먼저 접하는 「상연 목록」이 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사임한 이소자키의 제2안 『Imagine or Imaginaire de l'homme』과 통하는 점이 있다. 『Imagine or Imaginaire de l'homme』는 이소자키가 고안한 6개의 「테마 아이콘」을 6조 12명의 「컨셉츄어라이저」가 「컨셉화」해서 「회의장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전시하는 것이었다. 테마 아이콘은 「이카로스」, 「리바이아산」, 「설녀」, 「야미쿠로」, 「후랑켄슈타인」, 「고지라」이고 컨셉츄어라이저는 폴 비리리오(철학자), 아사다 아키라(淺田彰), 다니엘 리베스킨드(건축가), 후쿠다 카즈야(福田和也, 문예평론가), 아렉산드르 소크로프(영화감독),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음악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영화감독), 신키 노이(榎木野衣, 미술평론가), 머슈 바니(아티스트), 오시이 마모루(押井守, 영화감독), 채국강(蔡國強, 아티스트), 시마다 마사히코(島田雅彦, 소설가) 총 12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수한 미술작가는 두 사람 밖에 없다. 큐레이션 경험이 있는 비평가도 (『속도』, 『미지수』 등을 기획 구성한 비리리오를 제외하면) 한 사람뿐이며, 지금까지의 「전시」와는 전혀 다른 테마와 기획자들이었다.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통시(通時)와 공시(共時), 성스러움과 속물스러움이 뒤섞여 있기에 「아트(art)」라고 부르기에는 주저되는 면도 있지만 일상으로 부터 일탈하여 속되면서도 신선한 매력이 충만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요코하마 회의』에서 키타가와 후람 등은 이를 보고 「이것 참 재미있다.」라고 평가기도 했다.

카와마타의 「아트 서커스」와 공통되는 점은 확실히 이 점이다. 서커스란 변두리 거리에 잘 어울리고 비일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이공간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이런 자리를 통해 잠시 일상에서 떠나 꿈을 꾸고 현실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대량 동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교육적으로 미술사를 알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바로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짚어볼 때 「아트」와 「페스티벌」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왜 나쁘단 말인가? 아니, 「페스티벌」이 「아트」보다 위에 놓여도 괜찮지 않을까?

○ 「국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긴 하지만, 이소자키와 카와마타의 안은 어느 쪽이든 뭔가 빠져 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아트」의 정도 즉 미술사에 대한 참조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빠져 있는 것은 지역과의 연관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카와마타의 「아트 서커스」는 주회의장이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바닷가 창고를 이용하고 현지 사람들의 협력을 얻는 등 그 나름대로 향만도시다운 모습이 연출되어 있었고 시민 자원봉사와의 연계 플레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면 부산, 상하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등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그렇게 볼 때, 이소자키의 『Imagine or Imaginaire de l'homme』는 어디서라도 개최 가능한 디즈니랜드적인 인상이 강했다.

세계에는 지금 국제미술전이나 트리엔날레 등의 미술 행사가 50곳 이상의 지역에서 열린다. 그러한 「국제전 버블」 속에서 「국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논의는 근래에 더욱 활발해졌다. 우등생 같은 해답은 「현지 시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한 난쵸, 제6회 광주비엔날레를 이끈 김홍희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ART iT』 2006년 여름·가을호 등). 또한 상하이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중 한사람인 토비아스 버거는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제트족 큐레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전년도에 시드니, 베네치아, 이스탄불 등에서 세 차례나 전시된 작품이라도, 예를 들면 광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않은 작품이니까 그대로 전시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Art AsiaPacific』 50호). 물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찌면 미술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의견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지역과의 연관」이란 그것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내 관심사는 「장소 특정적 국제전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난쵸가 총감독을 맡은 제1회 싱가포르비엔날레(2006년)는 복수민족, 복수언어, 복수종교 국가의 현실을 반영해서 「신념(Belief)」을 테마로 내걸며 싱가포르에서 특징적인 장소를 전시장으로 택했다. 원래는 법원이었던 시청 건물이라든가 예전의 병영, 변화가인 오차드 거리의 길가나 점포, 가톨릭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불교사원, 힌두사원, 유대교의 유대교회당, 심지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회교사원 등 서로 다른 종교시설에 작품을 전시했던 것이다. 관객은 작품 감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내관광을 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개최 중인 절호의 타이밍에 맞춰 비엔날레를 외교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동남아시아 제일의 통제국가는 난쵸에게 훈장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문화 관광의 시대에 이만큼 「문화」와 「관광」을 보기 좋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다민족이 문화적으로 공생하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의 이상적 라이프스타일 모델」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의미 하는 「장소 특정적 국제전」은 아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검열을 당한 제인 알렉산더의 우수한 인스태레이션 등 몇 안 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작품과 전시회장이 각각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직접 관계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책임자들로서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관객들로서는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장소와 작품의 관능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별로 접할 수가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현지사람들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지역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외부사람들에게는 찾아와서까지 볼 가치가 있고 현지사람들에게는 재발견의 기쁨 혹은 재인식의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전시 말이다.

## ○ 장소 특정적 국제전

전통이 뒷받침되는 「축제」란 예외 없이 역사가 새겨진 시간 축과 뿔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소 특정적」이라는 것이 실은 「시간 특정적」이라고도 생각한다. 「대보름 전통 탈춤놀이」, 「자갈치 문화 관광 축제」, 「광안리 어방 축제」가 어느 정도로 부산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축제인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오래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아 온 축

제라면 시간의 길이에 따라 나름대로의 품격과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제는 일본에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있다. 국제전은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는 아니지만 근래에 흥미진진한 것은 북쪽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두 전람회이다. 하나는 핀란드나 이탈리아 등에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The Snow Show』로서 카르스텐 헤라와 토드 윌리엄스&비리 트엔, 아닛슈 카프아와 퓨츄어 시스템즈, 채국장과 더하하디드, 미야지마 타츠오(宮島達男)와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오노 요코와 이소자키 신, 스 드호와 Morphosis 등의 아티스트와 건축가가 조합해서 눈이나 얼음으로 만든 건물/조각을 전시하는 시도이다. 또 하나는 2005년에 리가에서 열린 『눈과 얼음의 대화전』으로 눈 연구로 알려진 일본인 물리학자 나카타니 우키치로(中谷宇吉郎)의 업적을 중심으로 라트비아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것이다. 여기에는 죽은 나카타니의 딸이고 「안개의 조각가」로서 알려진 나카타니 후지코(中谷芙二子), 카르스텐 니콜라이, 소네 히로시(曾根裕), 타카타니 시로(高谷史朗) 등의 아티스트들이 「눈」 등의 자연현상을 테마로 작품을 출품했다. 「추운 나라」에서 그곳만의 특징적인 기후를 주제로 한 장소와 시간 특정적 기획이다.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의 린츠에서 25년을 넘는 긴 세월을 걸쳐 개최되고 있는 『Ars Electronica』도 뛰어난 전시로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 특정적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한다. 불황에 허덕이던 공업도시 린츠가 지방특색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관광객도 불러들이기 위해서 펼친 기사회생의 방책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운영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의 소리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대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 테크놀로지(철공업)와 미디어 아트 사이에 깊은 친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곳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필연성이 있으면 현지 사람들의 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아시아에 관한) 「장소 특정적 국제전」이라고 하면 90년대 후반부터 때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 『Cities on the Move』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여기서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눈이나 얼음 등의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고, 격변이 계속되는 동아시아 대도시들에 가해지는 거의 자연과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사회의 창출과 거기에 따른 폐해이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와 함께 큐레이션을 계속해 온 후한여(侯瀚如)는 오브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2005년에는 제2회 광저우(廣州)트리엔날레의 디렉터를 담당했다. 도시 그 자체가 테마가 되었다는 점에서 『Cities on the Move』와 제2회 광저우 트리엔날레는 획기적인 국제전으로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시들이 만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늦어진 근대화를 불과 십여 년 만에 달성한 광저우 등 아시아 대도시의 폐해는 확실히 테마로서 자극적이다.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 있어서는 타국의 대도시와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여러 문제를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내용이 중후할 뿐 너무 계몽적이며 「공부」같은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축제적인 즐거움이 빠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까운 예외는 광저우에서 상연된 조비(曹斐)의 『주삼각효웅전(珠三角梟雄伝)』이다. 그 지방 학생을 배우로 기용하여 보통의 OL이라든가 자영업자 속에 섞여놓고, 벼락부자 자본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공원, 불륜을 동경하는 주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등이 등장하는 이 유머러스한 음악극은 광둥어 랩이라든가 극채색 무대미술과 함께 서커스에 뒤지지 않는 축제 감각을 만들어냈다. 영어자막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이에 상관없이 관객들은 신나게 웃었다. 현지 광저우 사람들도, 해외에서 온 관광객도, 제트족 큐레이터들도 모두 즐거워했다.

○ 「한류국제전」은 가능할까

『ART iT』 최신호(No. 16)의 특집은 『베네치아 공방사(攻防史) : 아시아-퍼시픽의 비엔날레 전략』. 그 중에서 이번 원고와 관계가 있을 듯한 글은 「VB 2007 한중일 샤도우 파빌리온 : '나라면 이렇게 기획한다.'」에 일본인 독립 큐레이터 히가시타니 류지(東谷隆司)가 기고한 기사다. 거대한 여성상에 관심 있는 조각가 니시오 야스유키(西尾康之)를 기용한 전시 기획은 『도나치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길이 약 25미터의 여성상을 거대한 풀 안에 눕혀서 전시한다는 장대한 안이다.

「그 표면은 신축적인 소재로 덮고 전신에 연결되어 있는 물을 주입하는 관에 의해 체내에 베네치아만의 해수를 들여보낸다. 근처 운하 기슭에 설치한 고압펌프에서 끌어올린 해수는 체내를 돌게 만든 혈관 상태의 튜브에 흘러들어가 그녀의 신체 구석구석을 부풀리어 퍼지게 만든다. 즉, 도나치터는 베네치아 바닷물에 의해 인체의 외관을 유지한다.」 (같은 기사에서)

「『여성(Donna)』과 『도시(Citta)』를 합한 이름을 가진 이 상은 도시를 의인화한 홈스크루스(인공인간)이다. 베네치아의 물로 연명되는 그녀(매일 해수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것으로서 생과 죽음을 계속 연기한다)는 두 가지의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축을 의식하면서 생명을 시각화한다. 즉, 개인이 살아 있는 '인생'의 시간과 도시의 생성과 임종이라는 '역사' 규모의 시간이다. 이 여성상이 거대한 스케일 감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기사)

베네치아에서 제작, 전시 되는 것을 의도한 이 기획은 장소와 시간 특정성의 두 요소(조건)를 부족함 없이 채우고 있다. 이것은 단발적인 개인전 기획이고 큰 페스티벌 기획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지하는 「이상적인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의도에 적합한 전람회이다. 「현지 시민의 것」이든, 문화관광 시대에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든, 국제전의 테마가 지역의 역사와 지역성에 뿌리를 둔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최하는 의미가 없고, 또한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계속성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라면 영화처럼 「한류 국제전」이 세계를 석권하는 날이 와도 좋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몽상하고 있다.